

우즈 “1000만弗 켜” 양용은 “포기 못해”

‘페덱스컵’ 최종전 1R… 우즈 3언더파 공동2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000만달러 로또’ 당첨에 한 발짝 다가섰다.

우즈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GC(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 2개에 버디 5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쳐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리더보드 맨 윗자리는 페덱스컵 포인트 7위에 올라 있는 선 오해어(미국)다. 오해어는 보기 2개에 버디 6개를 잡아 4언더파 66타를 쳤다.

우즈는 3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으나 6번홀(파3)에서 2.4m짜리 파 퍼트를 놓친 뒤 8번홀(파4)에서 또 다

시 4.8m 파 퍼트가 30cm 차이로 홀을 비껴나면서 전반 9홀을 1오버파로 마쳤다. 하지만 황제의 진가는 후반들어 발휘되기 시작했다. 9번홀(파5) 3.2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기세를 올린 우즈는 12번(파4)부터 15번홀(파5)까지 4개 홀에서 버디 3개를 추가해 3타를 줄였다. 드라이버의 정확도가 절반에도 못 미친 42.9%로 떨어진 데다 퍼트수가 29개로 다소 많았던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페덱스컵 포인트 6위(1400점)에 랭크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과 26위(250점)인 스튜어트 싱크(미국)가 우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타차 단독 선두에 오른 오해어는 “어제 연습 라운드에서 우즈가 나의 퍼트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

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황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만약 오해어가 우승하게 되면 페덱스컵 포인트 2500점을 보태 총점 3700점이 돼 우즈를 제치고 우승 보너스 1000만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현재 2500점인 우즈는 오해어에게 우승을 넘기게 되면 2위를 해도 3583점에 그친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버디 3개에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1타를 쳐 어니 엘스(남아공) 등과 함께 공동 16위에 그쳤다.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적은 25개의 ‘잔물 퍼트’를 과시했으나 드라이버의 페어웨이 안착률이 67.1%, 그린 적중률이 44.4%로 들쭉날쭉한 탓에 발목이 잡혔다.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3오버파 73타를 쳐 필 킬레스, 히스 슬로컴(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26위로 순위가 처졌다. |gol@fnnews.com|정대균기자

김나리 “긴 슬럼프 깰어요”… 1R 공동2위

‘CVS·파머시 LPGA 챌린지’

“드라이버 입스 땀했어요.”

드라이버 입스로 인해 기나긴 슬럼프를 겪었던 김나리(24·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VS·파머시 LPGA 챌린지’(총상금 110만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올라 부활을 알렸다.

김나리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빌 블랙호크CC(파 72·6212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단독 1위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과는 2타차.

안젤라 스탠퍼드(미국), 소피아 세리단(멕시코)과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김나리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김나리는 200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에서 상금왕에 올랐던 선수. 2004년 KLPGA 1부 투어에 데뷔해 활약한 뒤 2005년 말 캘리포니아(Q)스쿨을 통해 2006년 L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이후 지독한 드라이버 입스를 겪으며 지금까지 47개 대회에서 단 한번도 ‘톱 10’에 들지 못했다. 2007년, 2008년 Q스쿨에 다시 응시해 조건부 출전권을 획득했던 김나리는 올해 9개 대회에 출전했고 지난 14일 막을 내린 P&G뷰티 NW아칸소 챔피언십에서 공동 14위에 오르며 감을 회복했음을 알렸다.

배경은(24)도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평산산(중국)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라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신지애(21·미래에셋)는



버디 3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에 그치며 공동 46위로 밀렸다. 31개의 퍼팅 수를 기록하며 그린에서 고전한 것이 발목이 잡힌 요인이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디펜딩 챔피언’ 김연경(21·하나금융)도 1오버파 73타를 적어내며 공동 64위까지 처져 무거운 발걸음을 땀다.

|easysgolf@fnnews.com|이지연기자

KLPGA 3부투어 ‘태권남자’ 정시우 우승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정시우(3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A) 3부 투어인 ‘2009 롯데스카이힐 성주CC컵 KLPGA 점프투어 9차전’(총상금 3000만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시우는 25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파 72·6357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최종 합계

6언더파 138타로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다소 흐리고 안개가 낀 가운데 선두에 3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정시우는 2번홀(파4)과 3번홀(파4) 그리고 8번홀(파3)에서 모두 8m짜리 긴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상승세를 타고 이후 리드를 잘 살려 역전승을 거뒀다.

정시우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다 지난 1998년 골프 선수로 전향하며 2007년 KLPGA 준회원

이 된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선수.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던 정시우는 현재는 태권도 심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정시우는 “지난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오늘 우승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갚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승 소감을 말했다.

최진실(19)과 아마추어 박선영(18)은 최종 합계 5언더파 13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지연기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승을” ‘무명’ 이창민 5언더파 선두

‘KEB인비테이셔널’ 2R

【황성=정대균기자】“안되겠다. 집에 가서 몸 좀 추스르고 오자.”

지난 18일 메리츠솔모로오픈 2라운드 끝난 후 다시 컷 통과에 실패한 아들의 손을 이끈 아버지가 있었다. 프로 3년차 이민창(23·수페리아)과 아버지 이육현씨(54)였다. 이민창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 이씨는 아들의 경기가 있을 때면 장흥에서 손수 차를 몰고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야만 한다. 지난 4월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백을 땀던 이씨는 그 후로 캐디직을 그만 두어야 했다. 가슴을 쓸어내린 아들이 적극 만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 시즌 이민창은 10개 대회에 출전해 네 차례나 컷 미스를 당했다.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듯 이민창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용인하느니마 한 아버지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컷 오프를 당하고 나면 본인은 지근거리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GC 드림라인지 내의 아카데미(포틴 아카데미)로 가면 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또 다시 차를 몰고 장흥까지 돌아가야 하는 뒷모습을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오픈에 이어 지난주 대회서 2주 연속 컷 통과에 실패한 이민창은 어렵사리 말을 꺼낸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씨는 객지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아들에게 당분간 골프채를 놓고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그 효과 때문이었을까. 이민창은 25일 강원도 횡성군 오스타CC 남코스(파72·7275야드)에서 열린 한중투어 2009 KEB인비테이셔널 2차대회(총상금 4억원) 이틀날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골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 합계 5언더파 139타로 오후조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리더보드 맨



25일 강원도 횡성군 오스타CC서 열린 한·중 투어 KEB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몰아쳐 선두에 오른 이민창이 18번홀(파5)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리고 있다. |KPGA 제공

윗자리로 순위를 끌어올렸다(오후 4시 현재).

작년 KPGA선수권대회서 거둔 4위가 생애 베스트 성적인 이민창이 골프를 처음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겨울. 야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운동 선수로 성공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적극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미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이민창은 내친 김에 그 이듬해에 KPGA 정회원 자격까지 획득한 뒤 2006년 베어리버 투어 상금랭킹 2위 자격으로 2007년 투어 풀 시드를 획득해 올해로 투어 3년째를 보내고 있으면서 현재 상금 순위 69위에 랭크돼 있다. 골프에 입문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출몰 박성필 프로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민창은 “올 들어 골프가 부쩍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동문수학 중인 박상현, 이대준 두 선배님들의 도움과 조언이 많은 힘이 된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잡은 우승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고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연습 그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 · 승 · 의 · 순 · 간 · 에 · 는 · Y E S !

Yes!
2009 new
KI2000 IRON
MADE IN JAPAN

에스의 클럽에는
30년 장인의 손길이 묻어있습니다

헤드 백부위의 C-GROOVE 형상화를 통해
임팩트시 남아있는 진동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비거리와 최상의 타구감 제공

KLPGA KJGOLF
공식 지정 골프클럽 02-808-0707
WWW.KJGOLF.NET